

아름다운 학교화장실을 찾아서

경북 김천시 개령초등학교

# “화장실 청소 할 사람?”

## “저요! 저요! 제가 할래요.”



글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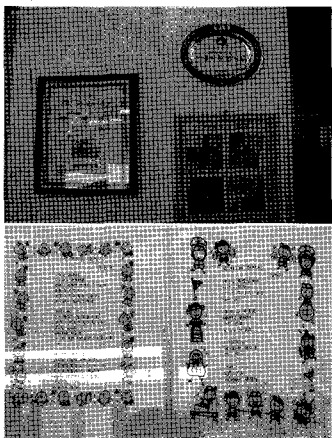
교장 | 안광태

전교생 100명 가량의 개령초등학교에 난리(?)가 났다.

“저요! 저요!” 학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뀐 뒤 아이들은 누구나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서로 하겠다는 진풍경이 일어났고 선생님들은 순번을 정해 주느라 진땀을 뺐다. 냄새나고 더러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할 때만 해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은 물론 아무도 없었다. 학교 화장실을 가는 게 싫어 불일(?)까지 꼭꼭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해결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학교 화장실이 제일 좋다면서 서로 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아이들 뒤집어졌어요” “학부모도 싱글벙글”

반갑게 필자를 맞은 개령초등학교 안광태 교장선생님과 김무순 교감선생님은 화장실을 개선한 후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 한 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하였다. “뒤집어졌어요.” 학교를 찾은 학부모, 지역 주민 역시 아이들 못지 않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싱글벙글이라고 귀뜸을 하셨다. 혹 내 아이가 학교에서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 실례(?)를 하여 다른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이제는 접고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반가워하신다는 것이다. 화장실 곳곳에는 명언이나 격언을 곳곳에 붙여 놓고 올바른 화장실 이용방법을 사진과 함께 게시해 놓은 것에서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시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중에도 아이들의 편의를 배려한 사랑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화장실 내 샤워시설까지 갖춘 것을 설명하실 때에는 웬만한 도시의 학교화장실도 갖지 못한 것을 갖추어 학생들의 위생을 생각하였다는 자랑스러움이 자연스레 묻어 나왔다.



▲▲ 화장실입구  
▲ 학생들이 직접 지은 동시

### 김천시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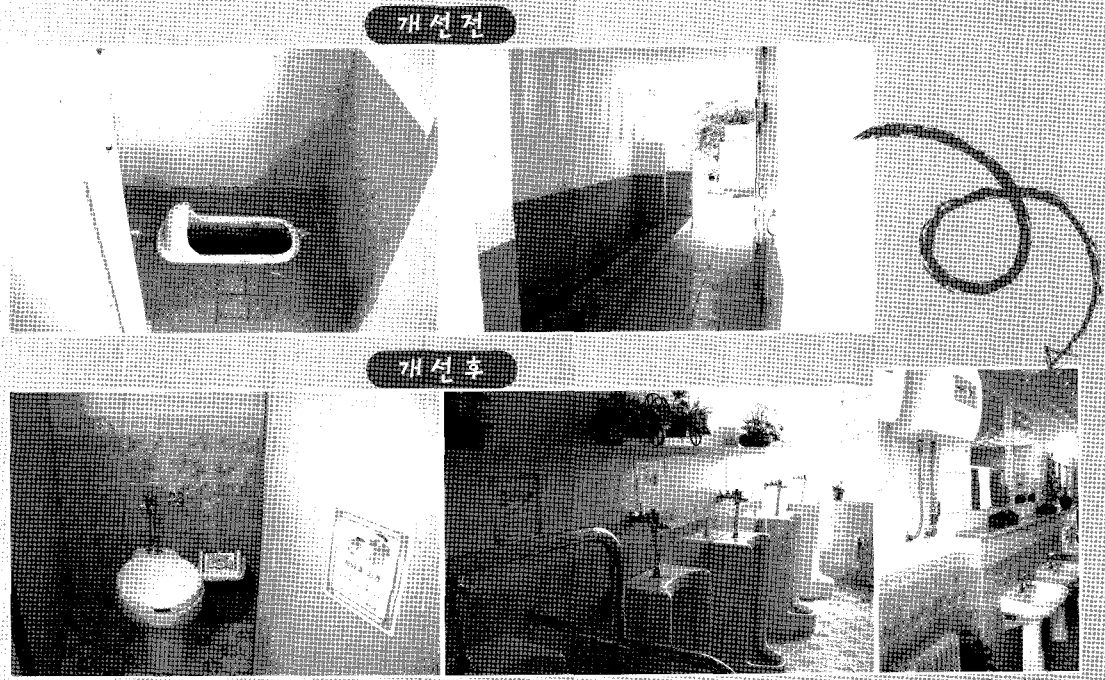
학교의 이런 노력을 높이 사 김천시(시장 박팔용)는 그간 식당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상하였던 아름다운 화장실을 확대하여 개령초등학교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하고 학교의 화장실 개선을 격려했다. 시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화장실패를 부착하고 전교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학교는 뜻하지 않은 기쁨을 누렸다. 또한 개령초등학교를 계기로 김천시는 앞으로 학교화장실의 개선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는 등 2000년 이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화장실 개선 정책을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학교 화장실 개선 교육적 효과 커

개령초등학교는 먼 지역의 초등학교의 낙후된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바꾸어서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과 높은 교육적 효과를 실감한 경

우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 수세식이다. 그러나 소도시 농촌, 산촌지역의 많은 초등학교는 아직도 재래식이 많다. 이는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아이들이 화장실을 기피하여 자칫 변비 등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것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여 선생님들은 불결한 학교화장실을 가기를 꺼려 인근 농협 등 학교외의 화장실을 찾기도 하고 억지로 참기도 하여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실이 바뀐 후 학교 생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이제 시작되어진 학교화장실 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지길 기대하며 개령초등학교의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즐거운 재잘거림을 생각하며 미소를 띠운다.



깔끔하게 정돈된 세면대 (온수기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좋아한다.)